Global Market Report 19-055

2019 국별 진출전략

아르헨티나

kotra

CONTENTS

2019 아르헨티나 진출전략

Ⅰ.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 3

1. 개요 ····· 3
가. 시장 전망 ····· 3
나. 주요 경제지표 ····· 4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
가. 외환위기 및 경기침체 극복을 통한 정권 재창출 과제 대두 ····· 4
나. 대외 개방, 민간 투자유치 정책 지속 추진 ····· 5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 6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6
2. 시장분석 ····· 13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13
나. 수출입 ····· 14
다. 투자진출 ····· 17
라. 프로젝트 ····· 19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의제 ····· 21
가. 교역 ····· 21
나. 투자 ····· 22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23

Ⅲ. 진출전략 ····· 25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25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26
3. 한-아르헨티나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31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 34
첨부 2.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37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18년 보다 희망적인 2019년 아르헨티나 경제

○ 2019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나,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

- IMF 구제 금융(총 563억 달러)을 통한 외환 공급*, 긴축 통화 및 재정 정책**,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으로 인해 점차 거시경제지표 안정화 예상

  * (IMF 금융지원 계획) 2018년 284억 달러, 2019년 228억 달러, 2020-2021년 51억 달러

  ** (GDP 대비 총재정적자 관리계획) 2018년 -5.6%, 2019년 -3.2%

○ 단, 2019년 10월에 예정된 대선 결과에 따른 정권교체 불안정성 상존

- 2019년 대선 정국 및 경제 침체 상황에 따라 정치·사회적 혼란 발생 가능성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 구	백만 명	42.67	43.13	43.60	44.08	44.57	45.06
명목 GDP	십억 달러	563.6	642.5	554.1	637.5	475.4	408.03
1인당 명목GDP	달러	13,209	14,895	12,708	14,462	10,667	9,057
실질성장률	%	-2.5	2.7	-1.8	2.9	-2.6	-1.6
실 업 률	%	7.3	6.7	8.5	8.4	8.9	9.4
소비자물가상승률	%	23.9	16.4	37.5	24.8	40.5	20.2
재정수지(GDP대비)	%	-4.3	-6	-6.6	-6.7	-5.4	-2.6
총수출	백만 달러	68,219	56,762	58,742	58,699	60,443	64,364
(對韓 수출)	〃	501	698	832	612	n/a	n/a
총수입	〃	62,429	57,176	57,260	63,924	57,721	53,522
(對韓 수입)	〃	753	1,047	796	836	n/a	n/a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5,050	-0,805	4,596	-5,224	2,722	10,842
경 상 수 지	〃	-9,180	-17,622	-14,693	-30,787	-31,881	-36,397
환율(연평균)	ARS/US$	8.08	13.08	15.00	18.77	38.81	41.6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1,921	875	1,787	1,168	n/a	n/a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달러	5,065	11,759	3,260	11,857	n/a	n/a

주: 2018년은 추정치, 2019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원: IMF, Connect, UNCTAD, K-STAT(한국무역협회 수출 통계)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외환위기 및 경기침체, 긴축정책에 따른 사회 갈등 극복 과제 대두
- 마크리 정부, 개방경제 및 친시장주의 정책 추진 가속화
- 개방형 통상정책 기조 견지, 역외국가 및 경제블록과 활발한 무역협상

가. 외환위기 및 경기침체 극복을 통한 정권 재창출 과제 대두

□ 아르헨티나 경제 현황

○ 2018년 11월 20일 현재 페소가치 연 초 대비 약 50% 하락*, 연간 45%로 예상되는 인플레, 기준금리 약 62%로 경기침체** 심화

* 1월초 달러당 18.76페소 → 11.20일 달러당 37.10페소

** 2018년 경제전망 : -2.6% (IMF, 2018.10월)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질임금 감소 및 고용 악화로 인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높은 금리로 인한 기업 투자 감소로 경제침체 가속화

○ (IMF 구제금융) 당초 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기로 협의하였으나 재협상을 통해 총 지원금을 563억 달러까지 증액하고, 조기 집행하기로 합의 (2018.10월)

* (IMF 금융지원 계획) 2018년 284억 달러, 2019년 228억 달러, 2020-2021년 51억 달러

□ IMF 구제금융에 따른 주요 경제 정책 변화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일정한 구간의 환율 변동폭을 설정,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없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환율정책 발표

- 중앙은행은 달러당 34~44페소의 폭을 기준 삼아 외환시장을 관리할 예정

* 환율이 달러당 34페소 보다 낮을 경우 달러 구입, 44페소 보다 높을 경우 달러 매각

○ 긴축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 도모

- 2019년 6월까지 본원통화 증가율을 0로 설정
- 이자율 및 지급준비율 조작, 통화채(Leliq) 발행 등을 통해 총통화 증가율 억제

○ 2019년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한 긴축 재정정책 단행

- 수출세 부과*, 정부부처 통폐합, 보조금 축소 등을 통해 2019년 재정균형 달성 목표 설정 (당초 재정적자 목표를 -1.3% → 0.0%로 변경)

* 콩, 옥수수, 밀 등 곡물 수출금액 1달러당 4페소, 산업제품은 1달러당 3페소의 수출세 부과

□ 긴축정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및 2019년 대선에의 영향

○ 각종 보조금 삭감 등 긴축 재정정책과 외환위기로 야기된 3高 현상(인플레이션, 이자율, 환율)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긴장 심화

- 실질소득 감소, 실직자수 증가 등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증가

○ 2019년 10월 대선 이전 경제적 불안정 해소, 경기 침체 회복 등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 시현 여부가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2018년말 현재 현 마끄리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

나. 대외 개방, 민간 투자유치 정책 지속 추진

□ 실사구시 개방형 통상정책으로 수출 저변 확대 및 투자 유치 도모

○ 수출지역 다각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과 경제협력 확대 추진

- 2017년 WTO 각료회의, 2018년 G20 정상회의 개최 등 국가 위상 제고

○ 남미공동시장(MERCOSUR) 4개국, 역외 국가 및 경제블록과의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 EU-Mercosur 양 경제블록 간 FTA 협상 2018년내 타결 전망
- 태평양동맹(PA), 한국, 캐나다, 일본, 인도, 중국 등과 협상 추진

□ 오일가스, 인프라, 전력 등 기간산업 분야 투자유치 노력 지속

○ 오일가스, 도로·철도·상하수도·항만 등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 분야 중심으로 해외 민간 자본 투자 유치 노력 경주

- 아르헨티나 무역투자진흥공사(AAICI)는 파이낸싱, 엔지니어링, 사업개발 및 운영 등 분야에서 3,000억불 규모의 투자유치 희망 프로젝트 발표(2018.9)

  * 오일가스(1,750억불) : Vaca Muerta 지역 셰일 가스 및 오일 개발 등
  * 인프라(450억불) :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항만, 관개 등
  * 전력(350억불) : 신재생에너지, 수력, 화력, 전력그리드 등
  * 광산업(300억불) : 리튬, 금, 은 등 광물 개발
  * 기타(170억불) : 농수산업, 무선통신, 부동산개발, 관광 등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2019년 10월 대선에 따라 2019년중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증대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 통화재정정책 시행 및 경제개혁 가속
- 국내 생산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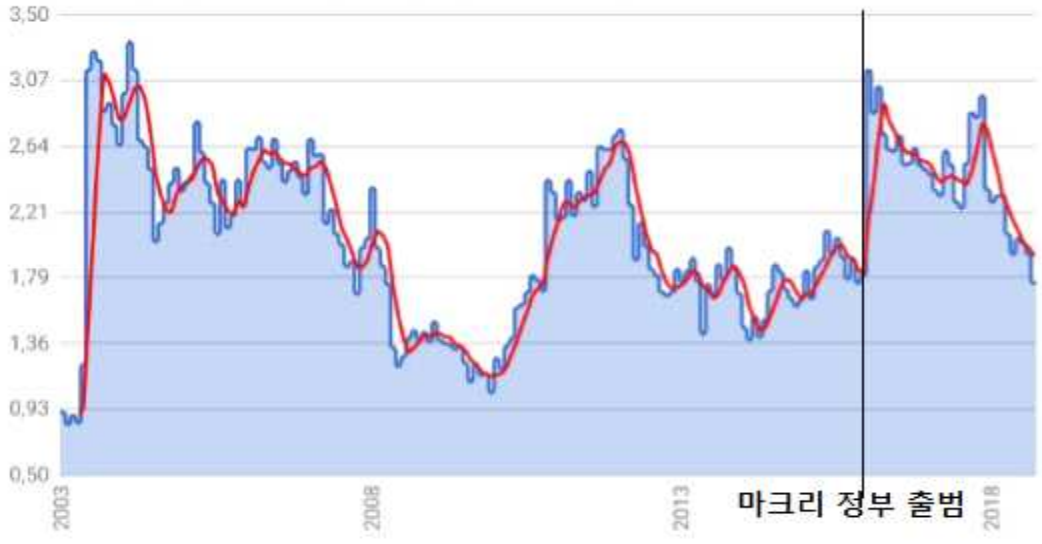
가. 정치 환경

□ 외환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가속, 현 마크리 정부 신뢰도 하락으로 2019년 대선 전망 불투명

○ 2017년 10월 중간선거에서 집권여당 승리로 마크리 대통령의 개혁・개방 정책이 탄력을 받았으나 2018년도 5월 이후 외환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마크리 대통령에 대한 신뢰 하락

- 마크리 정부 신뢰도 (Index Trust in Government)는 출범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이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기인

[정부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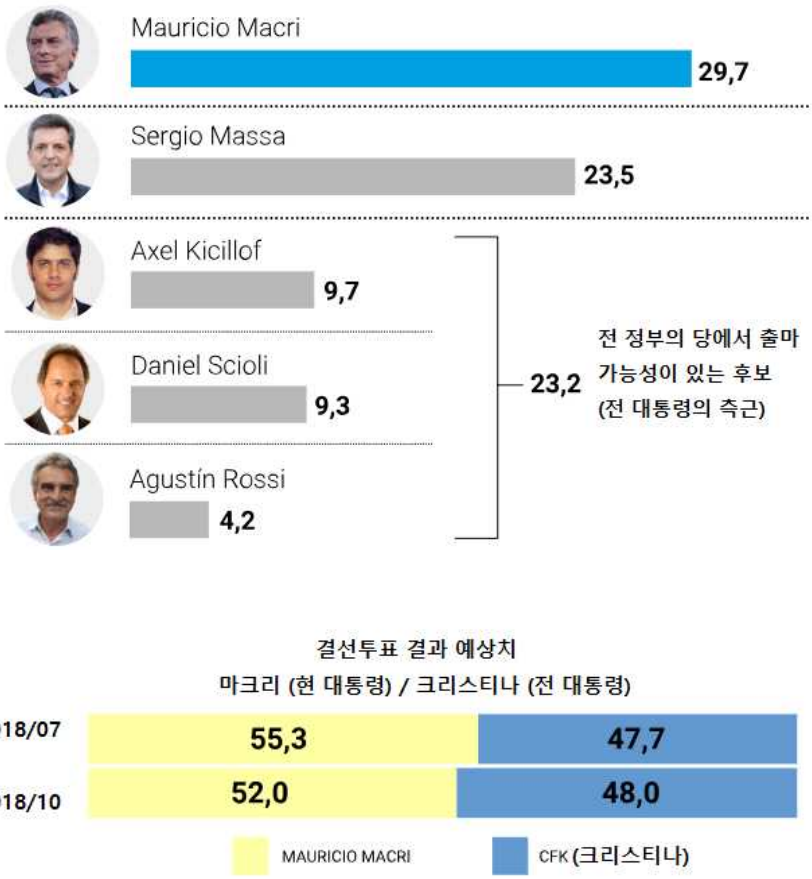


자료원: 아르헨티나 경제 컨설팅 업체 (Wise Management)

○ 마크리 대통령의 경우 현재 3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2019년 대선에서 2차 결선 투표까지 갈 것으로 예상

-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이 출마 할 경우 결선투표에서 마크리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

[2018년 하반기 대선후보(잠정) 지지율(여론조사결과)]



출처: 현지 언론 Clarin (201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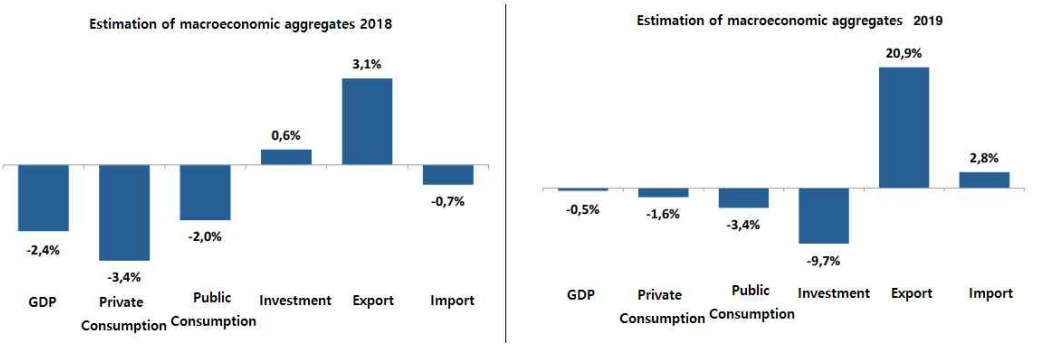
나. 경제 환경

□ 긴축 재정통화정책, 외환시장 불안정, 높은 금리 및 인플레이션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10월말 현재 연초 대비 페소가치 50% 하락, 연간 45%로 예상되는 인플레 및 70%를 상회하는 기준금리 등으로 2018년 경제성장율 -2.4%, 2019년 -0.5% 전망

- 2018. 5월 대규모 Currency run 발생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IMF와 총 563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 협약 체결(2018.10)
  * IMF는 2018년 284억달러, 2019년 228억달러 지원 예정

[2018년, 2019년 아르헨티나 거시 경제 지표 추정치]



출처: 아르헨티나 재무부 (Ministerio de Hacienda)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개혁정책 추진

○ 친시장 경제개방정책과 더불어 재정 균형을 위한 대규모 긴축정책 추진

- 노동개혁, 수출촉진, 역외 경제권과의 FTA 협상 등 경제개방정책 지속 추진
- IMF와의 협약을 통해 2019년 균형예산(재정적자 0%)을 목표로 대대적인 재정긴축정책 시행

다. 산업 환경

□ 자동차 산업

○ 2018년 자동차 산업동향(생산 및 수출 증가, 내수 판매 감소)은 2019년에도 환율 인상 및 내수 경기 침체에 따라 추세 지속 예상

  * (2018.1-9월 증감율) 자동차 생산량 5.6%, 수출량 31.3%, 내수판매량-12.1%

○ 아르헨티나 마크리 정부 출범 이후 자동차 산업분야 투자 확대

- PSA, Fiat, Renault, Nissan, Daimler, Ford, Volkswagen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아르헨티나 투자 확대 계획 발표
  * Daimler(Mercedes-Benz)사는 2019년부터 Sprinter 밴 신모델 생산을 위해 150백만 달러, 중국 Dongfeng Motor사 300백만 달러, BYD Auto사 100백만 달러 계획 발표
- 픽업트럭 투자증대로 2019년까지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의 경자동차 HUB로 부상
  * 2015년말, Nissan은 Renault 및 Mercedes-Benz와 합작을 통하여 Renault 코르도바 공장에서 픽업트럭 생산 확대를 위한 600백만 달러 투자계획 발표

* Toyota은 픽업트럭 모델인 Hilux를 30%이상 생산 확대(연간 14만대), Volkswagen은 New Generation Amarok 픽업트럭 모델 18% 생산 확대 (연간 6.5만대)

□ 전력 산업

○ 발전, 송·배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발전용량을 2017년 33GW에서 2025년 54GW로 확충 예정
  * 2016-17 2년간 총 9,400MW 규모의 전력PPA 입찰 시행(화력 4,948MW, 신재생 4,466MW)
  * 2018년말 제3차 신재생에너지 PPA 입찰(400MW 규모) 공고 예정
  * 총 2,700KM 길이의 송전망 건설(2019년 입찰), EDENOR 등 배전기업의 인프라 개선 투자 진행

○ 2017년 아르헨티나 전력기자재 수입규모는 57.9 백만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에 이어 4위를 기록

□ 온라인 쇼핑 산업

○ 온라인 쇼핑시장 폭발적인 성장

- 2017년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는 50억 달러를 상회하며 전년대비 52% 증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7.6%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임
- 총 전자상거래 중 28%가 항공권이며, IT 제품, 가구 등의 순으로 판매
- 전자상거래 형태는 B2C 93%, C2C 7%로 B2C 형태가 압도적

○ 사업규모 확대를 위한 배송시스템 개선이 필요

- 배송 인프라가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2017년 기준 제품 배송기간은 일주일 내외이며, 아직까지 열악한 배송시스템으로 제품구매의 약 44%만 직배송되고 있음

□ 의료장비 산업

○ 2017년 아르헨티나 의료장비 시장규모는 8.5억불로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멕시코에 이은 제3의 시장

- 2020년까지 연평균 6.6% 성장, 시장 규모는 12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

[아르헨티나 의료장비 시장 전망]

출처: BMI Research

○ 영상진단 장비가 아르헨티나 의료장비 시장을 선도

- CT, MRI와 같은 영상진단 장비 시장규모는 2.4억불로 약 30%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의료용 소모품 1.6억불, 환자 보조기기 1.3억불 순

○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시장의 특징

- 수입의존도가 전체 90%이며, 미국, 독일, 일본 브랜드 의료장비의 인지도가 높음
  * 주요 브랜드는 Siemens, Philips, GE Medical, Toshiba
- 현지 제조업체는 의료용 소모품 위주로 생산중이며 높은 기술 수준을 필요로 하는 의료장비들은 수입에 의존

□ 화장품 산업

○ 컨설팅 업체 CLAVES에 따르면, 화장품 업계는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상승추세를 유지

-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기준 판매금액 전년대비 17.8% 증가함

[2015~2017 아르헨티나 화장품 판매 추이]

(단위: 백만 페소)

출처: Claves

○ 아르헨티나 화장품 시장의 특징

- 기초화장품의 경우 현지제조가 대부분이나, 제품생산이 대부분 원료 수입 → 현지 제조 순으로, 제조업체들은 수입 병행
- 화장품 원료 및 패키징 제품은 수입의존도가 높고, 현지에서 제조되지 않는 마스크팩, 색조 화장품의 수요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인터넷 판매 증가

- L'Oreal 아르헨티나에 따르면, 2017년도 인터넷으로 판매된 제품량이 전년 대비 160% 증가했으며, 2018년도에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 발표

라. 정책·규제 환경

□ 현지생산이 있는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허가제(LNA) 시행

* 수입허가제(LNA, Licencia No Automatica)

○ 2015년 12월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 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 관리 제도인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시행

* 사전수입신고제도(DJAI,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

*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

○ 기존 무차별적인 수입규제 대신, 현지생산이 있는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허가제(LNA, Licencia No Automática)를 시행하며, SIMI 시스템을 통해 관리

- 약 1,300개 HS Code가 LNA 대상이며, 해당 제품은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칠 뿐만 아니라 수입 수량 및 금액에 제한을 두어 규제함

  * LNA 주요 품목은 섬유(원사, 원단, 의류), 가전제품, 장난감, 제화, 제지, 농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일부), 오토바이, 자전거, 가죽제품, 카펫, 철강(철사, 튜브, 파이프, 못), 유리제품, 모터, 가구 등에 집중

- LNA 품목이 아닌 경우는 SIMI 신청 후 약 48~72시간 안에 보통 승인이 나며, LNA 규제 품목인 경우 수입승인이 최대 60일까지 소요 (근무일 기준)
- SIMI 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은 제품은 180일간의 통관기간이 주어짐

○ HS Code의 포괄성 때문에 현지 생산이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에 걸려 승인이 지연되고, 사전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 추가비용 상승 압박

- 일부 품목은 현지 소수의 업체에 의해 생산되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 대상 품목으로 분류

□ 국내 산업생산 활동 장려 및 투자 촉진

○ (자본재 수입관세 인하) 아르헨티나 생산부는 산업생산 활동 장려와 투자 촉진을 위해, 현지에서 제조되지 않는 자본재 수입관세 전격 인하(2017년 8월 시행)

- 대통령령(Decreto) 622를 통해 현지 생산이 없는 자본재의 관세를 기존 14%에서 2%로 전격 인하하였고, 석유·가스 산업에 필요한 중고기계 관세를 0%로 면제

  * 0%관세가 적용되는 중고기계는 네우켄주의 셰일가스(Vaca Muerta) 투자 촉진 목적용

○ (전자무역시스템 본격 가동) 수출입 비용과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온라인 수출입 절차 조치가 2018년부터 가동

- 대외무역 일원화 창구인 싱글윈도우(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 VUCE)를 통해 수출입에 관한 모든 수속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 이번 조치로 평균 14%의 비용 절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교역에서는 최대 24%까지의 비용 절감 예상

○ (민관협력사업(PPP)법 제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절차 개선 관련 민관협력사업(PPP)법 승인(2017년 2월)

- 정부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장기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인프라, 주택, 서비스, R&D 분야 등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 가능
- 아르헨티나의 PPP는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민관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자동차 제조업 육성) 2017년 3월 마크리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00만 자동차 생산 플랜(Plan 1 Millón)' 발표

- 생산 : 2019년까지 75만대 생산, 2023년까지 1백만대 생산
- 고용 : 2023년까지 30,000개 일자리 창출
- 자동차부품 : 국산 자동차부품을 2019년 35%, 2023년 40% 까지 사용 확대
- 수출 : 메르코수르 수출 의존도에서 벗어나, 국내 생산의 35%이상 역외국가 수출
- 투자 : 2017~2019까지 5,000 백만불 투자 예상
- R&D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신기술 개발

○ (환경 친화적 자동차 관세 혜택 차별적용) 2017년 5월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판매증가를 위해 3년 동안 수입관세 인하 혹은 면제 발표

- 환경 친화적 자동차는 현재 100% 수입에 의존하는데, 관련 혜택은 현지에 생산 공장이 있는 브랜드에 한해서 차별적 적용
- 기존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수입관세 35%를 자동차 규격에 따라 5%, 2%로 인하하거나 혹은 면제함
- 2018년까지 1,000대의 환경자동차가 유통될 전망이며, 3년간 6,000대까지 수입 쿼터를 둠

2. 시장분석

- 중남미 3위의 경제대국으로 개발 잠재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 보유
- 생산성 하락과 수입 증가로 무역 적자 발생
- 마크리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행보로, 투자 매력도 상승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중남미 내 경제규모 3위, 인구 4위 시장

○ 2017년 아르헨티나 GDP는 6,370억 달러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3위의 경제대국

- 인구는 약 4,400만 명으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에 이어 중남미 4대 소비시장

[중남미 주요국가 GDP 비교]

(단위: 십억 달러)

연번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
1	브라질	2,055	1,909	1,929
2	멕시코	1,151	1,199	1,242
3	아르헨티나	637	475	408
4	콜롬비아	314	336	355
5	칠레	276	299	305

출처: IMF (2018.10월)
주: 2018년, 2019년 자료는 전망치

□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자원 보유

○ 아르헨티나 국토면적은 278만 Km2로 세계 8위, 이중 53%가 경작지로 활용 가능

○ 에너지, 식량 및 광물자원의 보고

- 광물자원 보유량 세계 6위, 국토 75% 미개발 상태로 향후 자원개발 잠재력이 높음(매장량 : 셰일가스 2위, 셰일오일 4위, 리튬 3위)
- 풍력과 태양에너지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은 부진
- 농목축 산업은 아르헨티나 GDP 비중의 6% 수준이나, 농축산물 및 가공품 수출이 아르헨티나 총 수출의 70% 상회

  * 농축산물(30%): 대두, 밀, 옥수수

  * 농축산 가공품(40%): 동물사료, 유지 및 식물성 오일

□ 경공업 위주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의 한계로 수출 경쟁력 상실

○ 아르헨티나 제조업은 중간재 산업인 중화학 산업 육성 없이 경공업 위주의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 추진

- 아르헨티나 수입 중 자본재 및 그 부품 등 중간재 비중은 71% 차지

  * 정부의 강력한 수입규제로 최종재 수입은 11%에 그쳤으며, 연료 12%, 자동차 6%로 구성

○ 자본재 수입 관세 하향 조정 등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생산 제품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상실로 대외 수출 확대에 어려움

□ 노동시장의 경직성

○ 전통적인 강성노조 및 노동자 중심의 노동법은 아르헨티나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

○ 경직된 노동법으로 한번 고용하면 해고는 어려우며, 노조 분쟁 발생 시 법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입장에서 법규를 해석하여 노동자 해고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

나. 수출입

□ 교역동향

○ 아르헨티나 수출입은 2013년 이후 수입규제 정책으로 감소세 유지, 2015년 말 현 마크리 정부 집권 이후 수출입 무역환경이 개선되어 교역량 증가 추세로 전환

[아르헨티나 최근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75,963 (-5)	68,407 (-10)	56,788 (-17)	57,879 (2)	58,384 (1)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74,442 (10)	65,736 (-12)	60,203 (-8)	55,910 (-5)	66,899 (20)
무역수지	1,521	3,178	-2,968	2,123	-8,515

출처: 아르헨티나 국립 통계청 (INDEC)

□ 수출 동향

○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메르코수르의 회원국인 브라질, 미국, 중국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31%차지

[아르헨티나 10대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국가	2016		국가	2017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비중
1	브라질	9,039	-10.34	브라질	9,307	2.97	15.94
2	중국	4,433	-14.32	미국	4,430	0.06	7.59
3	미국	4,427	30.91	중국	4,324	-2.45	7.41
4	베트남	2,546	41.35	칠레	2,620	13.64	4.49
5	칠레	2,306	-3.84	베트남	2,271	-10.78	3.89
6	인도	2,202	9.96	인도	2,080	-5.53	3.56
7	이집트	1,791	66.92	스페인	1,502	-8.74	2.57
8	스페인	1,646	21.74	알제리	1,471	26.45	2.52
9	독일	1,271	-5.25	네덜란드	1,391	17.65	2.38
10	인도네시아	1,243	15.20	캐나다	1,331	16.05	2.28
· · ·	· · ·	· · ·	· · ·	· · ·	· · ·	· · ·	· · ·
19	한국	865	48.46	한국	506	-41.54	0.87
전체		57,879	1.99	전체	58,384	0.87	100

출처: GTA (Global Trade Atlas)

○ 아르헨티나 5대 수출 품목은 1차 산품 위주이며, 옥수수, 밀, 대두 및 대두 가공품이 전제 수출의 약 38%를 차지

- 5톤 이하의 자동차가 전체 수출 품목 중 2위 차지 (수출 비중 11%)

[아르헨티나 5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HS코드	품목명	2017		
			금액	증감	비중
1	120190	대두, 대두가공품	15,540	-10.2	26.6
2	870421	자동차	6,327	14.4	10.8
3	100590	옥수수	3,935	-7.3	6.7
4	100199	밀, 호밀	2,701	23.8	4.6
5	710812	가공하지 않은 금	2,262	10.8	3.9
		합계	58,384	0.9	100

출처: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INDEC)

□ 수입 동향

○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수출교역국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중국, 미국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입의 55%를 점유함

[아르헨티나 10대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국가	2016		국가	2017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비중
1	브라질	13,845	4.22	브라질	18,140	31.02	27.12
2	미국	8,260	-5.93	중국	9,453	14.86	14.13
3	중국	8,230	-10.35	미국	9,376	13.51	14.02
4	독일	2,807	-2.55	독일	2,967	5.71	4.44
5	벨기에	1,550	-5.92	벨기에	1,790	15.50	2.68
6	멕시코	1,502	-7.70	멕시코	1,739	15.79	2.60
7	이탈리아	1,262	5.42	홍콩	1,633	55.69	2.44
8	프랑스	1,076	0.98	이탈리아	1,521	20.50	2.27
9	홍콩	1,049	-19.55	스페인	1,463	43.96	2.19
10	스페인	1,016	-7.12	볼리비아	1,255	43.37	1.88
. . .	. . .	. . .	. . .	. . .	. . .	. . .	. . .
15	한국	910	-10.82	한국	817	50.14	1.64
전체		**55,910**	**-6.48**	**전체**	**66,899**	**19.65**	**100**

출처: GTA (Global Trade Atlas)

○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 석유, 천연 가스 등의 순위를 보임

- 자동차 수입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신정부의 자동차에 대한 내국세 인하, 지하자금 양성화 정책 성공 및 경제 성장으로 인한 자동차 구입 증가에 기인

  * (내국세 인하) 자동차에 부과되던 내국세(30~50%) 인하(0~20%)

[아르헨티나 5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HS코드	품목	2017		
			금액	증감	비중
1	87032310	자동차(1,500cm3~3,000cm3)	3,862	33.7%	39.9
2	87032210	자동차(1,000cm3~1,500cm3)	1,822	48.4%	18.8
3	27101921	가스 오일	1,505	-2.5%	15.5
4	27112100	천연 가스	1,258	39.9%	12.9
5	85030090	모터, 전기 부품	1,238	142%	12.8
		계	9,685	37%	100

출처: 아르헨티나 국립 통계청(INDEC)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2018년 6월 기준, 18개국 59개 품목에 대해 85건 수입규제 조치 시행중이며, 28건 조사 진행중 (총 113건)

- 규제형태 : 반덤핑(85건 규제중, 28건 조사중, 총 113건)
- 규제품목 : 기계류 (일반기기-34건, 정밀기기-3건), 화학 (20건), 철강류 (15건), 유리, 도자류 (14건), 종이(6건), 섬유 (5건), 자동차 부품(4건),잡품 및 신발 (7건)
- 대상국가 : 중국(60건),브라질(12건), 대만 (5건), 태국 (4건), 인도(6건), 칠레(4건), 한국(3건), 미국 (2건) 순

* 출처: WTO,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 (CNCE)

○ 2018년 상반기(1~6월), 5개국 4개 품목에 대해 신규 조사 개시

- (피제소국)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 (신규 조사 제품군) 알류미늄, 기계류, 화학제품, 잡제품

○ (對韓 수입규제 현황) 2018년 6월 기준 아르헨티나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3건으로, 2건 반덤핑 규제 중이며, 1건 조사(2 품목) 개시됨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2건, 전기전자 1건

다. 투자진출

□ 아르헨티나 투자 동향

○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 기준,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에 이어 4번째로 FDI 유입이 많은 나라

- 현 마크리 대통령 취임 이후 2016년 외국인 투자 유입액은 약 32.6억 달러로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118.6억 달러에 달함

○ 주요 투자국은 미국(22.6%), 스페인(17.5%) 및 네덜란드(12.2%)이고, 주요 투자 산업분야는 에너지(Oil), 도매 및 식품산업 분야임

[아르헨티나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FDI	2015	2016	2017
FDI 유입	11,759	3,260	11,857
FDI 잔액	79,773	70,855	76,576
FDI 잔액/GDP	12.41	12.78	12.01

출처: UNCTAD

[국가 및 산업별 F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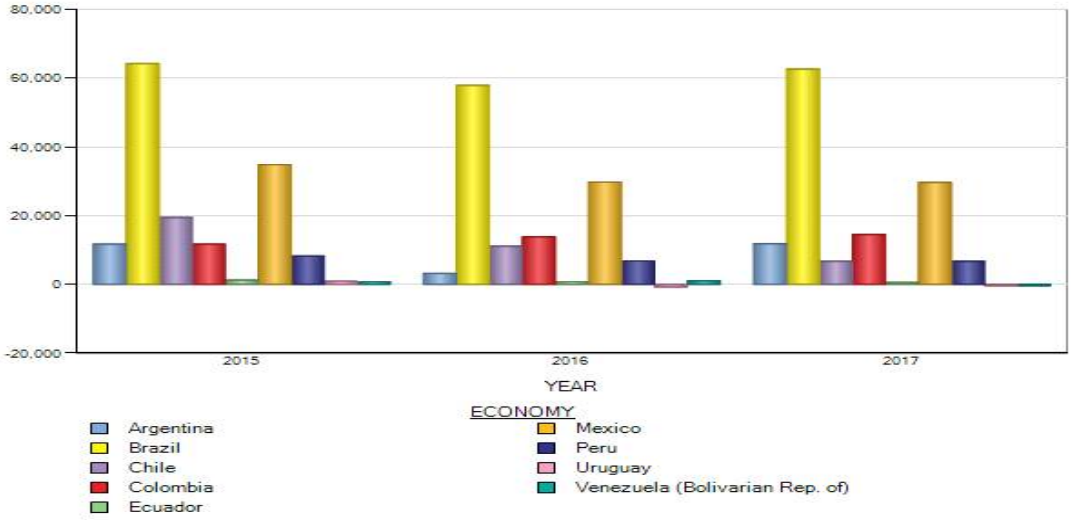
투자국	비중(2016/%)
미국	22.68
스페인	17.58
네덜란드	12.20
브라질	6.05
칠레	5.16
우루과이	4.78
스위스	4.57
프랑스	3.69
독일	2.96
캐나다	2.79

투자 산업분야	비중(2016/%)
오일	13.84
도매업	8.19
식품업	5.44
광산업	5.43
자동차 산업	5.42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	5.34

출처: BCRA, 최신자료

[2015년~2017년 라틴아메리카 FDI 유입추이]

(단위: 백만 달러)



출처: UNCTAD

○ 마크리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성노조, 치안, 낙후된 인프라, 숙련된 노동자 부족, 조세압력 등이 투자자들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됨

- 마크리 대통령 집권 후, 對 아르헨티나 투자는 느리지만 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함
- 2019년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 환율 급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가 주춤해지고 있으나, 현 여권의 대선 승리로 인해 불안감이 해소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될 전망

라. 프로젝트

□ 교통인프라 및 전력 분야 프로젝트 발주 계획

○ (도로건설) 아르헨티나 정부는 민관합작투자(PPP) 방식으로 17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 총 7,277km에 달하는 신규 고속도로와 국도 (13개 구간) 및 2개 교량을 건설하고 13,000km에 달하는 기존 도로 (고속도로, 국도)에 대한 보수공사 계획 (1단계 공사는 2018년 9월 낙찰기업과 계약 체결 완료)

○ (철도터널 및 통합역사 건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주요 기차역인 Retiro, Constitucion, Once역은 각각 다른 통근열차 노선의 종착역이었으나 RER통합역 및 철도터널 건설을 통해 3개역을 모두 연결하는 프로젝트 추진

○ (전력공급 확충)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5년까지 전력에너지 수요의 20% (약 10GW)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RenovAr사업을 발표하였고, 화력발전 확대를 위한 공개입찰도 두 차례 시행

- 2016-17 2년간 총 9,400MW 규모의 전력 PPA 입찰 시행(화력 4,948MW, 신재생 4,466MW)
- 2018년말 제3차 신재생에너지 PPA 입찰(400MW 규모) 공고 예정

○ (송전망 건설) 아르헨티나 에너지차관실은 2,200km에 달하는 500KVA 고압 송전라인과 500km길이의 132KVA 송전라인, 관련 변전소 11개 건설에 대한 PPP입찰 시행 예정 (23억 달러 규모)

○ (철도 건설) 셰일가스 개발이 한창인 Vaca Muerta 지역과 대서양을 잇는 Bahia Blanca 항구와 연결되는 Northpatagonian Train 사업 (약 664km의 화물철도 건설, 7.83억 달러 투자)도 계획되고 있음. 셰일가스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화물 운송비용 절감, 에너지 공급 효율화, 수출증대 등 다방면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세부 프로젝트

○ 도로 PPP 사업

해외발주처	Vialidad Nacional / 아르헨티나 도로국		
재원조달	아르헨티나 정부, 국내외 민간기업 합작투자유치	규모(백만달러)	17,000
프로젝트 상세정보	- 총 3단계에 걸쳐 7,227km에 달하는 13개 도로구간(고속도로, 국도) + 2개 교량건설, 총 프로젝트 규모는 170억 달러 수준으로 민관합작투자 (PPP) 방식으로 사업 추진 - 아르헨티나 도로국(Vialidad Nacional)의 주관 하에 13,000km에 달하는 기존 도로 (고속도로, 국도)에 대한 보수공사 추진		
추진현황 및 계획	- (1단계) 2017년 11월 1일 입찰서 공개, 2018년 9월 6개 구간 (A, B, C, E, F, Sur구간)에 대한 계약체결 완료 - 2018-2019년 중 나머지 구간에 대한 입찰 예정		

○ RER프로젝트

해외발주처	Ministerio de Transporte / 아르헨티나 교통부		
재원조달	아르헨티나 정부, 국내외 민간기업 합작투자유치	규모(백만달러)	14,000
프로젝트 상세정보	아르헨티나 교통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사업 중 하나로 수도권 지역의 통근열차, 지하철, Metrobus (버스), Combis (출퇴근용 승합차), Ecobici(공공 자전거) 등 교통편이 모두 한 곳에서 환승이 가능케 하는 통합 역사 및 철도터널 건설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계획	3단계로 계획되어 1단계 입찰은 2018년 8월 제안서 제출 마감 및 제출 서류 개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잠정보류 상태		

○ RenovAr 3.0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공개입찰

해외발주처	Secretaria de Energia / 아르헨티나 에너지청		
재원조달	아르헨티나 정부	규모(백만달러)	400
프로젝트 상세정보	RenovAr 3.0은 기존 아르헨티나 내 설치되어있는 배전망 (13.2kV, 33kV, 66kV)을 활용하여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최대 발전용량 10MW) 40여개를 선정하는 공개입찰 프로젝트임.		
추진현황 및 계획	2016년 시작된 RenovAr사업은 2025년까지 아르헨티나 전력 수요의 20% (약 10GW)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목표로 시행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3차례 공개입찰이 진행되어 147개 프로젝트 (4,466.5MW 규모)가 선정 RenovAr 3.0의 경우 2018.11월 입찰 공고, 2019년 3월말 낙찰자 선정 예정		

○ 송전망 PPP 프로젝트

해외발주처	Secretaria de Energia / 아르헨티나 에너지청		
재원조달	아르헨티나 정부, 국내외 민간기업 합작투자유치	규모(백만달러)	2,300
프로젝트 상세정보	9개 송전라인이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약 2,200km에 달하는 500kV 송전망과 약 500km의 132kV 송전망, 11개 변전소 신규건설 및 확장사업 내용 포함 (1단계) Rio Diamante 변전소 (확장사업)와 신규로 건설되는 Coronel Charlone 변전소(약 480km 거리)를 500kV 송전라인으로 연결하고 Coronel Charlone 변전소에서 인근 5개 지역으로 연결되는 132kV 송전 라인 420km가 건설되는 내용으로 2018년말 입찰 공고 예정		
추진현황 및 계획	2018년 9월 1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 입찰 공고, 2018년말 본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2019년 2, 3단계 입찰 진행 예정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의제

가. 교역

□ 한-아르헨티나 교역액은 2012년 24억 달러 달성 이후 지속 감소 추세

○ 2018년 8월까지 對아르헨티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8% 감소한 4.3억 달러, 수입은 25% 감소한 2.5억 달러로 무역수지 1.8억 달러 흑자 기록

- (수출) 아르헨티나 수입규제와 자국 산업보호 정책으로 최종재보다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중간재(자본재), 혹은 현지 생산이 불가능한 기술 집약적 제품 위주로 수출
- (수입) 주요 수입 품목은 농림수산물 및 광산물 등 1차 상품에 국한됨

[한-아르헨티나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월)
총액 (증감)	1,704 (46)	2,129 (25)	2,401 (13)	2,270 (-5)	1,255 (-45)	1,746 (39)	1,629 (-7)	1,448 (-11)	690
수출 (증감)	909 (84)	1,081 (19)	973 (-10)	1,075 (11)	754 (-30)	1,047 (39)	796 (-24)	836 (5)	439 (-18.1)
수입 (증감)	795 (18)	1,048 (32)	1,428 (36)	1,195 (-16)	501 (-58)	699 (39)	833 (19)	612 (-26)	251 (-25)
수지	114	33	-455	-120	253	348	-37	159	188

출처: KITA 무역통계

[對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HSK 코드	품목	2017년		2018년 (~8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9013	광학기기	84.0	141.2	50.1	12.5
2	8708	자동차 부품	52.2	12.5	46.5	93.8
3	8703	승용차	93.3	-16.5	42.0	-31.2
4	7210	도금강판	21.7	686.4	30.5	93.3
5	8517	무선통신기 부품	101.1	-29.4	22.5	-69.9
6	8486	반도체 부품	1.4	174,159.2	13.5	-
7	8529	기타기계류 부품	33.4	-55.3	10.2	-54.7
8	3906	아크릴 중합체	15.1	21.7	9.5	-17.1
9	8429	건설 중장비	22.7	172.0	9.2	-36.5
10	8207	공구	18.3	480.1	8.7	-0.3

출처: KITA 무역통계
주: 증감률은 동기대비

[對 아르헨티나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HSK 코드	품목명	2017년		2018년 (~8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1005	옥수수	238.9	-19.4	108.9	131.8
2	2616	광석	55.8	-0.0	35.2	-12.1
3	2836	과탄산염	26.6	114.2	25.4	76.0
4	0303	생선	29.8	-11.5	25.3	19.2
5	1507	대두유	84.8	-24.6	12.7	-82.5
6	0306	갑각류	13.9	31.8	12.2	49.7
7	5105	양모	7.7	69.9	6.1	-21.2
8	0307	조개류	3.1	13.5	5.1	83.8
9	2204	와인	4.7	7.6	3.3	16.1
10	2008	과일, 견과류	4.0	8.2	3.1	3.0

출처: KITA 무역통계

주: 증감률은 동기대비

나. 투자

□ 투자진출 현황

○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투자진출 미미

- (투자현황) 신고건수 168건, 금액 187백만 달러 (2018.10월 기준)
- (비중) 전체 해외투자금액의 0.07%로 미미한 수준

[對 아르헨티나 투자 현황]

(단위: 건, 개, 천 달러)

법인구분	항목	연도별 총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현지법인	신고건수	149	2	4	2
	신규법인 수	56	0	2	1
	신고금액	456,732	377	893	380
	송금횟수	378	1	5	2
	투자금액	183,950	177	1,093	300
지점	신고건수	9	2	0	0
	신규법인 수	3	0	0	0
	신고금액	3,105	505	0	0
	송금횟수	13	1	0	0
	투자금액	1,375	5	0	0
지사	신고건수	10	0	0	0
	신규법인 수	4	0	0	0
	신고금액	1,930	0	0	0
	송금횟수	4	0	0	0
	투자금액	1,909	0	0	0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주: 연도별 총 합계는 1980년~2018년까지 누적 합산

[한국기업의 對 아르헨티나 업종별/법인별 투자현황]

(단위: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56	21	54,955	88	29,434
광업	37	11	223,277	214	74,053
제조업	41	19	96,029	48	14,837
건설업	3	1	4,400	16	1,805
도매 및 소매업	16	6	79,543	19	65,26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1	200	1	2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	4	3,342	9	1,641
기타	1	0	22	0	0
합계	168	63	461,768	395	187,234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 아르헨티나 진출 한국기업 현황

○ 제조법인은 없고 판매법인, 전자·수산업 분야 위주 투자

- 가전회사 2개사, 의료기기 1개사, 서비스업 2개사, 광업 1개사, 수산업 1개사, 건설업 1개사, 무역업 1개사 등 총 9개사 현지 진출 영업 중

[아르헨티나 진출 한국기업 현황]

구분	진출업체	진출년도	비고
전자	삼성전자	1996	전자제품
	LG전자	1986	전자제품
의료기기	세라젬	2007	온열치료기
서비스업	한국선급	2007	등록선박 검사, 신규 등록 유치, 해운관련 정부 업무 연락
	판토스	2016	물류
광업	포스코	2015	리튬
수산업	한성기업	1985	원양산업
건설업	현대건설	2017	건설
무역업	포스코대우	2017	무역업(곡물 위주)

출처: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추진

○ 메르코수르의 중심축인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대외정책방향 선회로 역외 국가 및 경제블록과 활발한 무역협상 진행 중

-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개시 선언(2018.6) 및 1차 협상(2018.9)

□ 한-아르헨티나 정부간 협정 및 양자대화채널 추진

○ 현재 교섭중인 정부간 협정

- 사회보장협정(문안합의), 워킹홀리데이협정(문안합의), 이중과세방지협정(협의중)

○ 고위정책협의회 등 분야별 양자대화채널 가동

- 경제공동위(2014.12, 5차 회의), 에너지자원협력위(2017.3, 3차 회의), 산업협력위(2017.3, 1차 회의), 고위정책협의회(2017.11, 7차 회의)
- 아르헨티나 생산노동부는 양국간 무역투자 진흥협력 로드맵 수립 희망
  * 생산노동부는 아국의 산업부에 로드맵 초안 전달(2018.11)
- 투자, 인프라 개발, 수출 및 기술교류 등 협력가능분야 제시

□ 의료기기/의약품 시장 진입 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간 보건분야 협력 필요

○ 한국 의료장비/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까다로운 제품등록 절차로 인해 시장진출 애로 다대

- 아르헨티나는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등 일부국가를 위생고경계국(High Vigilance Country)으로 분류,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등록이 비교적 용이
- 반면, 한국과 같이 상기 위생고경계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식품의약청(ANMAT)의 해외공장 심사(GMP)를 통한 안전성 인증 혹은 위생고경계국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등록이 가능
  * 의약품이 의료기기 등록 절차 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

○ 한국을 위생고경계국으로 분류, 간이 인증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정부 간 보건의료 분야 협약 체결 필요

Ⅲ 진출전략

- 개방 및 친시장 정책 적극 활용
- 기술 집약 및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 높은 수입 관세 극복 방안 마련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아르헨티나 SWOT 분석]

강 점(Strength)

- 개발 가능성 높은 천연자원 풍부
- 중남미 3위의 경제 대국
- 메르코수르 경제의 중심축

약 점(Weakness)

- 복잡한 조세제도
- 노동자 중심의 노동법 및 강성노조
-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 열악한 인프라 환경
- 높은 물가 상승률, 고질적 재정적자

기 회(Opportunity)

- 개방경제 및 친시장주의적 정책으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개시
- IT 등 기술집약 제품 수요 증가

위 협(Threat)

-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EU 등 경쟁국과의 FTA 협상 진행
- 2019년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치 불안
- IMF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 재정·통화 정책
- 경기침체 심화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현 정부의 개방 및 친기업 정책 기조를 활용해 기술 집약,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공략	기술 집약 품목 위주 진출
ST 전략 (강점 활용)	메르코수르 동맹국에 법인 및 공장을 설립해 관세 인하 절감 효과 활용	메르코수르 동맹국 활용
WO 전략 (기회 포착)	SOC 인프라 구축, 쉐일가스/오일 개발, 신재생 에너지원 확충 프로젝트 참여 확대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 참여
WT 전략 (위협 대응)	범 정부 차원에서 상호 보완적인 교역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관세 인하 등)을 통한 교역 활성화	한-아르헨티나 무역협정 체결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19년 진출전략

분야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중간재·자본재	• 현지 생산이 부족한 자본재·중간재 위주 유망상품 발굴 및 시장 공략
자동차 부품	• 수입규제가 약한 부품 위주 시장 진입 • 현지 자동차 부품 업체와 조인트벤처 방식의 진출
전력기자재	• 아르헨티나 현지 파트너 발굴 필수 • 전력기자재 전시회 참가 및 전략적, 공격적인 마케팅 방안 모색
의료장비	• 유럽 선진국 판매 확대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미국 및 유럽에서 개최되는 의료장비 전시회 적극 참가

가. 중간재·자본재 시장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ㅇ 아르헨티나는 다양한 산업이 발달
* 아르헨티나 산업생산은 GDP의 15%, 전체 고용의 22.4% 차지
* 주요 산업분야는 식품가공,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정유, 바이오디젤, 화학, 제약, 철강 및 알루미늄, 농기계, 가전제품

ㅇ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되었던 산업생산활동이 2017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반등
*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재(원자재·중간재·자본재)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아르헨티나 정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본재 위주로 수입관세 인하

-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수입관세 기존 14%에서 2%로 인하

○ 아르헨티나에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자본재 및 중간재는 수입에 의존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현지 생산이 부족한 자본재·중간재 위주 진출 노력 강화

- 관련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 및 전시회 참가
- 자동차부품, 전력, 건설, 식품가공, 석유화학 산업 분야 위주 기자재 및 중간재 수입이 확대될 전망

나. 자동차 부품시장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ㅇ 중남미에서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 시장은 브라질, 멕시코 다음으로 크며 2016년 기준 아르헨티나 내 차량 대수는 총 12.5백만 대로 집계

* 자동차 부품에 따라 현지 생산 및 수입 의존도가 다름

* 현지에 생산되는 부품은 정부의 산업 보호를 받고 있어 각종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ㅇ 아르헨티나 자동차 메이커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산 시장 점유율 1~2%이며 주로 유럽, 미국산 비중이 높은 편임

*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지만 국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들 중 미국-유럽산 자동차 사양 위주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적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아르헨티나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은 아르헨티나의 총 공업생산량의 9%, GDP의 2.5% 그리고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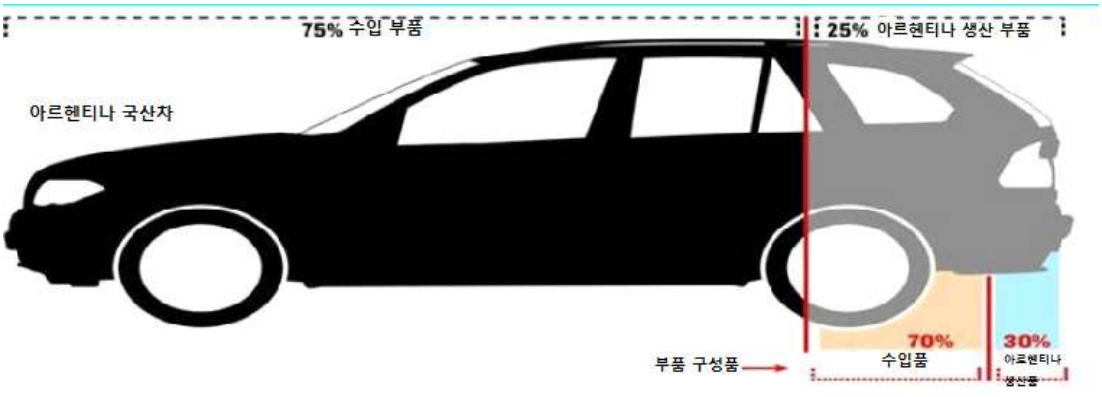
- 자동차 부품 수입 시장은 약 14억 달러로 측정되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중 브라질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함
-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아르헨티나 현지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며 현지에 생산되는 부품은 정부의 산업 보호를 받고 있음

  * Dayco (Drive Systems), Denso(Radiator, Condenser), Die Tech(Metal Parts), Fric Rot(Shock Absorbers, Suspension Parts), Master Trim (Panel, Seat), SKF(Shock Absorbers), ZF Sachs (Suspensions) 등

○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하는 완성차의 경우 약 75%정도가 수입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자동차 부품에 있어 수입 의존도가 높음

- 아르헨티나의 기술수준이 완성차 산업을 뒷받침 할 만큼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 자동차 생산을 위한 부품수입은 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제품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 조달 방법]



출처: 현지 주간지 La Nación

○ 마크리 정부의 수입규제 완화정책으로 중국 및 한국 자동차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

- 현대·기아차 등 한국산 자동차 수입 증가에 따라 한국산 부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7년부터 여러 중국 자동차 메이커(FAW, LIFAN, CHERY, GEELY, DFSK, BAIC, JMC 등)가 아르헨티나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규격인증 등 산업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는 부품 위주로 진출

- Brake Disk, Clutch, 플라스틱 부품, 타이어, 휠 등의 부품은 특별한 인증 없이 수입 가능
-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시장은 저가 제품의 비중이 높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 Mercosur 회원국인 브라질에서는 무관세로 수입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평균적으로 14~18% 수입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와 조인트벤처형 진출 방안 모색

- 강력한 수입제한 정책 하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지 부품 생산기업들과 JV형식의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

  * 공동으로 부품모델 개발을 통해 현지 시장 공략

  *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여 생산공정 중 일부를 아르헨티나에서 진행함으로써 수입규제 우회

-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의 80%이상이 수입허가제 품목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어 현지 업체와 협력을 통한 진출 필수

○ 아르헨티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전시회 활용

- 아르헨티나에서는 격년제로 자동차 부품 전시회 Automechanika 개최됨

  * Automechanika 전시회는 18개국 400개 기업 참가, 평균 3만 명 방문 규모

- 전시회 참가를 통해 현지 유통 딜러, 자동차 생산 기업 구매 담당자들과 상담 가능

다. 전력기자재 시장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ㅇ 아르헨티나 전력시장은 2015년 말 Mauricio Macri 정부 출범이후 3년간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 분야로 발전량 확대와 송, 배전망 증대 및 변전소 건설 등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유럽 기업의 갑질 횡포로 타 국가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

ㅇ 아르헨티나 전력기자재 시장은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제품이 각축

*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오르는 추세

□ 주요이슈 및 트렌드

○ 판매자간의 새로운 경쟁 구도 형성

- 유럽, 미국 기업에 대한 높은 신뢰도로 Siemens, ABB, GE 등 선진국 대기업의 시장장악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갑질, 횡포 등으로 고객의 불만 상승
- 또한, Mercosur (남미공동시장)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브라질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의 높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 상향 평준화로 선진국 제품과 치열한 경쟁 중
- 다만, 중국제품은 설치한 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 발생 및 판매 후 고객대응의 부재로 최근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아르헨티나 협력업체 발굴’ 필수

- 아르헨티나 전력기업 (발전, 송전, 배전업체 등) 또는 전력기자재 구매처는 보수적인 성향을 띄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 제품소개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고 기존 거래처를 쉽게 변경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 전력기자재를 수입, 유통하며 전력기업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현지 협력업체 발굴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
- 주요 전력기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공급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공급자 등록을 위해서는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현지 대리인 명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
- 최근 주요 전력기업의 입찰정보는 각각의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나 공개 전 사전조율을 통해 공급자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개 전 담당자를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협력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유리함

* 현지 법인이나 판매 사무소가 없는 해외기업의 경우 A/S가 확실치 않다는 인식이 있음

* 아르헨티나 전력기업 및 전력기자재 구매처는 오랜 기간 유럽제품을 취급했기 때문에 CE, UL 등 세계적 수준의 안전 인증서를 요구함

○ Expo Biel 전력기자재 전시회 참가 및 전략적, 공격적인 마케팅 방안 모색

- 아르헨티나 최대 전력기자재 전시회인 Expo Biel (격년 개최)에 참가,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현지 시장에 국내제품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
- 전시회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개별적인 로드쇼 등을 진행하며 관련인사들에 국내제품을 소개하는 방법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시장현황, 입찰소식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각 전력기업의 니즈와 성향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수립
- 가격, 품질에 대한 가성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정보가 오픈되지 않으면 관심을 끌 수 없음. 각 사양마다 가격이 다르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제품이나 평균 가격대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함

라. 의료장비 시장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ㅇ 중남미에서 아르헨티나 의료장비 시장은 브라질, 멕시코 다음으로 크며 2020년까지 연평균 6.6%의 성장 예상
*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시장

ㅇ 아르헨티나 의료장비 시장은 미국 및 유럽 선진국 제품의 각축장
* 한국의료장비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

□ 주요이슈 및 트렌드

○ 2016년 아르헨티나 의료장비 시장규모는 7.2억불로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멕시코 다음으로 큰 3대 시장임

- 경제회복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여 2020년까지 연평균 6.6%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며, 시장 규모는 13억불에 이를 것으로 분석

○ 前정부의 수입대체정책으로 저가 사양(Low-tech)의 의료장비 및 소모품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이 크게 늘어난 상태

- 마크리 정부의 수입규제 완화정책으로 저가시장에서 중국 및 브라질 제품 수입이 크게 확대됨

- 최첨단 기술(High-Tech)이 필요한 제품은 수입에 의존중이며, 전통적으로 미국 및 유럽산 장비의 수요가 높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선 미국 및 EU 진출, 후 아르헨티나 진출' 전략 필수

- 고위생경계국(High Vigilance Country)에 속하지 않은 한국은, 이들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자율판매증서"가 반드시 필요함

  * 아르헨티나는, 호주, 캐나다, EU, 미국,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를 고위생경계국으로 분류하고, 해당국의 식약청에서는 매우 엄격한 규격으로 자국 내 생산 및 판매되는 의료기를 감시하고 있다고 간주

  * 고위생경계국이 아닌 국가의 제품은 아르헨티나 시장에 진출하려면 고위생경계국의 보건당국으로부터 안정성을 보증받아야 아르헨티나 진출이 가능함

  * 고위생경계국의 '자율판매증서'를 확보한 업체는 제품에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다고 판단돼 아르헨티나 식약청에 생산, 판매, 수입을 위한 인증 신청가능

○ 인지도 높은 의료장비 전시회 및 학술대회 적극 참가

- 중남미 바이어는 미국 및 유럽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및 학술대회 참관하여 공급처를 물색하는 경우가 많아, 세계에서 인지도 높은 전시회 및 장비 분야별 학술대회 참가하여 중남미 시장 진출 기회 확보

3. 한-아르헨티나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019년 진출전략

분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자원/에너지	○ 자원개발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 분야 IPP 사업 진출
인프라	○ 도로, 교량, 철도 등 SOC 인프라 분야 PPP사업 적극 진출

가. 자원개발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 분야 IPP 사업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ㅇ 쉐일가스/오일 최대 매장지(쉐일가스 세계 2위, 쉐일오일 세계 4위)인 Vaca Muerta 지역에 대한 주요 석유회사들의 투자 확대
- 2015-2017 기간 중 주요 석유회사들은 약 34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
- 아르헨티나 국영석유공사(YPF) 2019-2023년까지 총 250억 달러 규모 투자계획 발표(2018.10월)
  -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쉐일가스/오일 생산 150% 증대 목표

ㅇ 아르헨티나 정부 2030년까지 원유/가스 수출국으로의 전환 정책 추진
- Vaca Muerta 지역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확대, 제도 정비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철도 건설 추진
- Vaca Muerta 지역의 쉐일가스/오일 시추비용이 크게 감소 (미국에서의 시추비용에 근접)

ㅇ 신재생에너지 비중 2025년까지 20%까지 확대 추진
- 2016-17 2년간 총 9,400MW 규모의 전력PPA 입찰 시행(화력 4,948MW, 신재생 4,466MW)
- 2018년말 제3차 신재생에너지 PPA 입찰(400MW 규모) 공고 예정
- 향후 약 5,00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추가 발전 필요

□ 쉐일가스/오일, 리튬 등 광물 자원 조사 등 전략적인 진출방안 모색 필요

○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Hombre Muerto 리튬 염호 인수(2018.8) 및 2019년중 연산 2,500톤 규모의 시범 리튬 가공 공장 건설 예정

○ 쉐일가스/오일 개발, 정유 및 LNG 시설 확장 투자 등 아르헨티나 국영석유공사 및 다국적 석유기업들의 투자계획 조사 및 협력방안 적극 모색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IPP 사업 진출 관련 다양한 추진방안 검토

○ 단독 또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방식으로 정부의 전력구매(PPA) 입찰 참여 또는 대규모 전력수요자(배전사, 공장 등)와 직접 공급계약 체결

나. 도로, 교량, 철도 등 SOC 인프라 분야 PPP사업 적극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ㅇ 마끄리 정부는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 PPP법 제정(2017년) 등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ㅇ IMF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이나 고속도로, 철도, 송전망 건설 등 국가 경쟁력 및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인프라 사업은 PPP 형태로 지속 추진 예정

□ 경쟁력 있는 파이낸싱 조달 능력이 PPP사업 진출의 관건

○ 아르헨티나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대부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또는 외국기업이 개발자금을 전액 조달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아국 기업의 경우 파이낸싱 조달 능력이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

- 아국 기업의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해외사업 금융 및 보증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도 경쟁력 있는 국내외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진출전략 구사 필요

○ 현재 아르헨티나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현대건설이 PPP사업 진출 검토 중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품목명 1	HS Code	8708.30	수입관세율(%)	14
브레이크 디스크	수입액('16/US$백만)	35	대한수입액('16/US$백만)	1
	선정사유	수입인증 및 수입쿼터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부품으로 제품 경쟁력만 갖추면 시장 진출이 용이한 품목		
	시장동향	저가 제품 비중이 높은 편이며 특히 브라질, 중국산이 시장점유율 80% 정도를 차지		
	경쟁동향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관세가 0%인 것을 이용, 브라질(60%) 제품 수입비중이 가장 크며,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20%) 제품 또한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진출방안	저가 시장에서 밀린 한국 제품의 경우 고가 차량 위주(BMW, AUDI 등)로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		
	유망국가	브라질, 중국		
품목명 2	HS Code	8708.93	수입관세율(%)	14
클러치 (Cluch)	수입액('16/US$백만)	48	대한수입액('16/US$백만)	2
	선정사유	클러치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부품이지만 대부분 After market 위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저가 제품 위주로 시장에 유통됨. 품질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산 제품이 품질 차별화를 통해 시장진출 가능		
	시장동향	한국차량 비중이 적은 아르헨티나 시장이며(1~2%) 미국, 유럽 차량 비중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함(90% 이상)		
	경쟁동향	메르코수르 관세가 0%인 것을 이용한 브라질산 (50%) 제품 비중이 높은 편이고, 뒤를 이어 유럽, 미국산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함(30%)		
	진출방안	SUV 및 Sedan급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유럽 및 미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유럽 및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부품을 개발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시장진출 가능		
	유망국가	브라질, 프랑스, 독일, 미국		
품목명 3	HS Code	3040.90	수입관세율(%)	8
의약품 (원재료)	수입액('17/US$백만)	1,291	대한수입액('17/US$백만)	0.027
	선정사유	현지 바이어들이 우수한 한국 제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임		
	시장동향	현재 수입 80%, 현지생산 20% 정도의 점유율로 의약원재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경쟁동향	전통적인 미국 및 유럽산을 제치고 인도 및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상승		
	진출방안	- 학술자료 및 전시회를 통해 한국의약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 등록을 위해서는 CE(혹은 FDA)인증과 미국 및 EU(프랑스, 독일) 식약청에서 발급하는 "자율 판매증서"가 필요 - 유럽 혹은 미국에서 딜러나 지사를 통한 사전 판매 이력이 필요		
	유망국가	아르헨티나		

품목명 4	HS Code	9018.12	수입관세율(%)	14
의료기기 (진단 장비)	수입액('16/US$백만)	29	대한수입액('16/US$백만)	6
	선정사유	기술력부족으로 수입에 의존. 최근 몇 년간 한국 의료장비 수요가 늘어났고, 기술 및 품질경쟁 가능		
	시장동향	현재 수입 80%, 현지생산 20% 정도의 점유율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경쟁동향	미국, 유럽(독일,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제조된 장비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 브라질 등의 시장 확대가 이뤄지고 있음		
	진출방안	한국의료장비의 인지도가 상승중이지만,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 등록을 위해서는 CE(혹은 FDA)인증과 미국 및 EU(프랑스, 독일) 식약청에서 발급하는 "자율판매증서"가 필요함 즉, 유럽 혹은 미국에서 딜러나 지사를 통한 사전 판매 이력이 필요		
	유망국가	독일, 미국, 일본		
품목명 5	HS Code	842481	수입관세율(%)	16
농약살포기	수입액('17/US$백만)	53	대한수입액('17/US$백만)	0
	선정사유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있으나 수입되는 제품에 비하여 가격 및 품질 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		
	시장동향	- 아르헨티나는 세계 3대 대두 및 옥수수 수출국가인만큼 농업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매년 판매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농약살포기의 경우, 농작물에 따라 살포기의 모델 및 구조가 달라지며, 아르헨티나와 같은 일년생 작물(대두, 옥수수 등)의 생산량이 많은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약살포기는 Self-Propelled Sprayer		
	경쟁동향	메르코수르의 관세가 0%인 것을 이용한 브라질(55%) 제품 수입비중이 크며, 아르헨티나와 동일하게 일년생 작물을 많이 제배하는 미국(22%)이 브라질 다음으로 수입비중이 큼		
	진출방안	A/S를 제공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 현지 제조업체와 파트너쉽을 통해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유망국가	브라질, 미국		
품목명 1	HS Code	8535	수입관세율(%)	16
리클로져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	수입액('17/US$백만)	57.9	대한수입액('17/US$백만)	0.7
	선정사유	아르헨티나 정부 주도하에 전력분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전력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시장동향	- 2015년 Mauricio Macri 정부 출범이후 전력수급 안정화가 아르헨티나 정부의 주요 목표. 변전소, 배전 구간 고장 시 발생하는 로스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로 아르헨티나 전국 배전업체의 수요가 가장 높음 - 환경적 요인으로 SF6 가스절연 제품보다는 친환경적인 진공절연, 폴리머절연 제품을 요구하고 있음		
	경쟁동향	- 유럽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지역 또는 미국산 전력 기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음 - 최근 기술적으로 상향평준화 되었고 0% 관세율로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브라질 제품에 대한 수입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2017년 수입량은 2015년 대비 약 2배가량 상승) - 최근 인도, 한국, 터키 등 신흥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진출방안	- 현지 협력사와 파트너쉽을 체결한 뒤 각 전력청이 요청하는 전력기자재를 공급하고 현지 협력사가 제품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A/S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CE. UL등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인증서 획득이 필수적임		

	유망국가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인도, 한국		
품목명 2	HS Code	854470	수입관세율(%)	14
소형 발전기 (가정용 및 상업용)	수입액('17/US$백만)	30	대한수입액('17/US$백만)	2.5
	선정사유	Plan Federal de Internet 프로젝트로 인한 광섬유케이블 수요가 크며 한국 제품은 가격 및 품질경쟁이 가능하여 높게 평가되고 있음.		
	시장동향	Smart TV, 데스크톱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FTTH(Fiber to the Home)의 출현으로 광섬유케이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국영 위성통신사 ARSAT에서 추진중인 Plan Federal de Internet 및 Plan de Conectividad de escuelas rurales 프로젝트 등 정부에서 통신네트워크망에 많은 투자 중.		
	경쟁동향	독점 중이던 일본 기업 Furukawa와 프랑스 기업 Nexans에 이어 이탈리아 기업 Prysmian이 추가되어 현재 3사가 아르헨티나 내 유일한 광섬유 케이블 생산업체임 Frukawa 및 Prysmian은 아르헨티나에서도 생산 하지만 메르코수르의 관세가 0%인 것을 이용하여 브라질에서 더 크게 생산하여 아르헨티나로 수입/유통 중.		
	진출방안	정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대부분 현지 업체를 통해야 함. 그러기 때문에 알맞은 파트너를 사전 물색하는 것이 관건임.		
	유망국가	한국, 중국, 브라질, 멕시코, 미국		

첨부 2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 선거일정 : 대선, 총선 등 주요 선거
- 기타 경제(정치) 주요 일정 : 예) 이란 핵협상 등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아르헨티나 대선	2019.10월	

□ 주요 경제·통상 일정

- 법령제정/예산일정 : 외투법, 에너지법 개정 등 법령 개정 및 예산발표
- 무역협정 : FTA, CEPA 등 무역협정 협상시작/완료/체결/발효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연중	

담 당 자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이진성 직 책 과장
Tel +54-11-4312-0033 Email kotrajin@kotra.or.kr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김주희 직 책 대리
Tel +54-11-4313-0746 Email juhee@kotra.or.kr

본사 시장조사팀 직 책
Tel + Email

2019 국별 진출전략

아르헨티나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